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임이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175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자동차 부품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3

I. 개요

1. 임의자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3175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임의자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9. 23.

(3) 회 부 일 : 2025. 9. 2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부품 산업은 대표적인 수출 산업으로서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임. 그런데 최근 대외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관세 부담이 증가하여 수출 경쟁력 저하 우려가 있음.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의 관세 부담으로 인한 생산 비용 증가 효과를 상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생산한 자동차 부품 생산비용의 100분의 10(중견기업은 100분의 12, 중소기업은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등).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자동차 부품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임의자의원안)

현 행	개정안
<신 설>	☐ 자동차 부품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안 제104조의36) ○ 공제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생산한 자동차 부품 생산비용 ○ 공제율: 10%(대기업), 12%(중견기업), 15%(중소기업) ○ 적용기한: 2030. 12. 31. ○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 배제 ○ 최저한세 적용 ○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 시행일: 2026. 1. 1. ○ 적용례: 이 법 시행 후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경우부터 적용

* 임의자의원안 2025. 9. 23. 발의(의안번호 13175)

☐ 개정안은 자동차 부품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생산한 자동차 부품 생산비용에 대하여 10%(대기업), 12%(중견기업), 15%(중소기업)의 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 산업은 자동차 부품 산업에 해당하는 11개 업종과 자동차 부품 산업과 연관이 높은 73개 업종으로 정의할 수 있음.¹⁾

2023년 기준 자동차 부품 산업 관련 사업체 수는 총 21,443개로 추정되고, 종사자 수는 331,709명이며 매출액은 총 142조 2,732억 원에

1)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등

달함.²⁾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어 보임.

첫째, 대내외적 여건 악화에 따라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이고, 자동차 및 관련 부품은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으로 2023년 기준 자동차 수출액은 347억불,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82억불에 달한다는 점에서 자동차 산업의 어려움은 국가 경제의 어려움으로 귀결될 우려가 있음.

최근 완성차 판매량 증가세 둔화³⁾, 글로벌 경쟁 심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산업의 위험요인이 커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다각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둘째, 영세 자동차 부품 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2023년 기준 자동차 부품산업 사업체 21,443개사 중 5인 미만 사업체가 10,520개사로 49.1%이고,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인 사업체가 6,398개사로 29.8%에 달함.

2) '2024년 자동차 부품산업 실태조사', 한국자동차연구원, 2025. 2.

3) 글로벌 경자동차 판매량(Global Data): '22년 7,878만대 → '23년 8,684만대(10.2% 증가) → '24년 8,883만 대(2.2% 증가)

[종사자 규모별 자동차 부품산업 사업체 수]

(단위: 개사, %)

구 분	사업체 수	구성비
5인 미만	10,520	49.1
5인 이상 10인 미만	4,062	18.9
10인 이상 20인 미만	2,553	11.9
20인 이상 100인 미만	3,868	18.0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66	1.7
300인 이상	75	0.3
총계	21,443	100.0

주: 2023년 기준

자료: '2024년 자동차 부품산업 실태조사', 한국자동차연구원, 2025. 2.

[매출액 규모별 자동차 부품산업 사업체 수]

(단위: 개사, %)

구 분	사업체 수	구성비
5억 미만	6,398	29.8
5억 이상 10억 미만	4,717	22.0
10억 이상 30억 미만	4,490	20.9
30억 이상 100억 미만	3,200	14.9
100억 이상 300억 미만	1,951	9.1
300억 이상	686	3.2
총계	21,443	100.0

주: 2023년 기준

자료: '2024년 자동차 부품산업 실태조사', 한국자동차연구원, 2025. 2.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생산비용의 일정 비율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경우 비효율적인 생산구조일수록 세제지원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둘째, 기획재정부는 생산비용 공제제도는 수입품에 대한 차별조치이므로 통상규범 충돌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연구용역을 통한 추가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셋째, 자동차 부품 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6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기업에서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한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험평가 장비구축 및 시제품 제작,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5년 8월 현대차·기아-하나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협약에 따라 현대차·기아 및 하나은행은 총 4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출연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이를 기반으로 총 6,300억원 규모 우대금융을 자동차 부품사 등 협력사에 지원함.

참고로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을 비롯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자율주행자동차 등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각종 지원 등을 규정하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2024년 1월 제정되어 2024년 7월부터 시행 중임.

문 의 처
02)6788-5154